

미호뮤지엄 매미보살상(蟬冠菩薩像)



보살(菩薩)은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토티바(bodhisattva), 파리어로 보디사타(bodhisatta, 菩提薩多)라고도 한다.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석가를 가르키는 경우도 많다. 보통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래 불, 구도자라고도 한다. 대승불교 해석은 위로는 스스로 보리를 찾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구제, 교화하는 이타행을 하는 자를 말한다.



맥적산 석굴 142 호굴의 우비교각불상(麦積山石窟台 1 4 2 号窟의 右壁交脚菩薩像) /후지이 소장 동위 석조삼존불 입상의 중존 광배(藤井有鄰館所藏의 東魏天平 2 年 (535) 銘石造三尊佛立像의 中尊頭光) /산동성 박물관 북위 6 년(525 년) 석조삼존입상의 중존(山東省博物館所藏의 北魏正光 6 年銘의 石造三尊佛立像의 中尊) / LA 카운티 뮤지엄에 있는 석조보살입상



미호뮤지엄에서 전시중인 매미보살상(蟬冠菩薩像)이다. 중국 산동성에서 발굴된 불상으로 연대가 알려진 다른 불상과 비교하여 북위 말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광배의 거대한 원주선이나 연꽃무늬 광배 장식이 독특하다.

중국 남북조 미술 - 3세기 한이 멸망한 다음 4세기 북방 유목민족이 화북으로 쳐들어와 한족 나라를 화남으로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다. 이를 오호 16국 시대라고 한다. 북위(北魏)는 이 복잡한 화북 왕조를 통일시켰다. 한편 남쪽으로 쫓겨간 한족은 동진 왕조를 세워 남북조 시대를 열었다. 당시 화북은 남쪽이나 서쪽에서 교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기도 했다. 운강석굴을 비롯한 대 석굴은 서쪽의 조각 양식이 반영되었다. 강남에서는 귀족을 중심으로 청담한 문화가 생겨 한민족의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하여 세련된 예술이 생겼다. 그림의 고기지(顧凱之, 392년 - 467년, 남송), 글씨의 왕희지(王羲之, 303년-361년, 동진), 시의 도연명(陶淵明, 365-427년 11월, 위진 남북조시대, 六朝期)이 활약한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남의 한족 나라는 정치적으로 약해서 송, 제, 양, 진 등 네 왕조가 바뀌기도 했다. 불교 경전에도 관심이 많아서 불교 이해가 비약적으로 깊어져 중국사람의 감성에 맞는 불교 양식이 생기기도 했다. 이 때 후한이 망한 뒤 화남에서 흥망한 6 왕조를 육조시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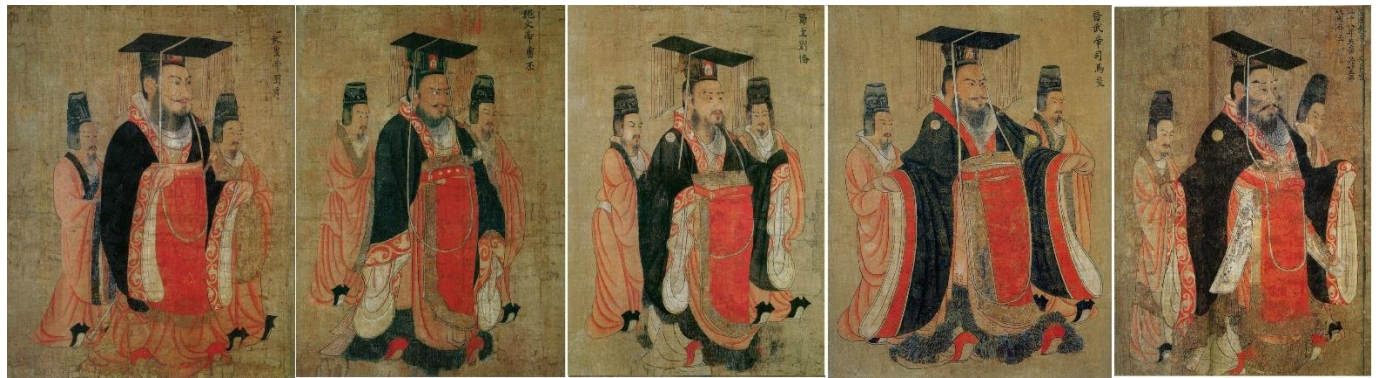


매미보살입상(菩薩立像) 석회석(石灰石), 높이 : 120.3cm, 북위 말에서 동위 때(6世紀前半)

불상은 광배를 포함해서 몸 전체, 지금은 없어졌지만 양팔이나 옷을 포함해서 모두 돌 덩이 하나로 만들었다. 이 불상은 옆에서 보면 목과 아랫배가 약간 튀어나왔다. 이른바 구(久)자 모양으로 서있다. 고졸기 미소(archaic smile, 그리스 초기 조각이나 중국 육조, 일본 아스카시대 표정 가운데 하나이다. 입술 양끝이 살짝 올라가고, 미소를 지은듯 보인다.)라고 불리는 입술, 아랫배에서 엑스자 모양으로 교차해서 무릎을 덮은 천의 등 언뜻 보아서 북위 시대 용문 석굴에서 볼 수 있는 양식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둥글고 큰 광배, 얼굴에 보이는 사실적인 모습은 고양동(古陽洞)이나 비양삼동(賓陽三洞) 불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머리 관이나 어깨 꾸미개의 간결한 모습, 어깨에 걸쳐 두 줄로 겹쳐진 고사리 모양 머리카락(수발), 가운데 옥모양으로 그리워진 장식성 꾸미개, 교차된 부분의 반구형 영락(瓔珞), 좌우로 넓이를 줄여 왼발 옆으로 드리워 옷자락으로도 만들어진 다른 불상보다 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간 치켜올라간 눈꼬리 장식이나 눈썹에서 코로 이어진 둥근 능선은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치마에 새겨진 비교적 폭이 좁은 평행선상의 옷은 물결 모양으로 몸을 따라서 흐르고 있다. 불상은 좌우 대칭을 지키고 있어서 엄격한 형식미를 준다. 전체적으로 매우 장엄한 느낌이다.

이 불상은 맥적산 석굴 142호굴의 우비교각불상(麥積山石窟台142號窟の右壁交脚菩薩像) 등 북위 말기 불상이나 27호굴 정벽합협시보살상(27號窟の正壁龕脇侍菩薩像) 등 서위(西魏大統年間, 535-551) 때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보다 섬세한 조각 모습이나 둥근 대형 광배, 당초무늬 채색 등은 산둥성 박물관 북위 6년(525년) 석조삼존입상의 중존(山東省博物館所藏の北魏正光6年銘の石造三尊佛立像の中尊) 및 후리아 미술관 북위 석가 삼존상(Freer Gallery of Art, フリア美術館の北魏永熙三年(534)銘の釈迦三尊像), 후지이 소장 동위 석조삼존불 입상의 중존 광배(藤井有鄰館所藏の東魏天平2年(535)銘石造三尊佛立像の中尊頭光) 등과 비슷한 연꽃 양식이다. 만든 방법은 영국 런던에 있는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에 있는 동위 삼존불상(東魏武定二年(544)銘の仏三尊像)에 가깝다.

마츠하라(松原三郎) 씨는 동위(東魏) 말에서 북제(北齊)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곳(諸城縣博物館所藏の金銅三尊菩薩像)에서 이미 만들어진 비슷한 옷 무늬보다 뛰어난 사실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신시네티 아트뮤지엄(Cincinnati Art Museum) 수나라 때로 보이는 보살입상 및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LA 카운티 뮤지엄에 있는 석조보살입상 등도 형식적으로는 이 불상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자유롭고, 사실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로 보아 이 작품은 6세기 전반 북위(北魏, 386 - 534年) 말기에서 동위(東魏, 543-550년) 초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관 정면의 매미 모양 장식은 매우 드물다.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의 무령왕(武靈王)이 호족(胡族) 풍습을 따라서 무관이 이런 매미 장식을 달기 시작하여 뒤에 황제의 신하나 고급 환관이 청렴, 근검 절약의 상징으로서 관 앞에 매미 장식을 했다고 한다. 북연(北燕時代, 409-436)의 마소불(馮素弗) 무덤에서 매미 꾸미개와 함께 금제 산 모양 관 장식이나 머리핀 꾸미개가 나오기도 했는데 장식 뒤쪽에 불좌상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이 불상이 만들어지기 100여 년 전에 관 장식 뒤에 화불(化仏)을 숨겨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으로 보아 화불 대신 매미 장식을 단 보살상이 북조 전통의 황제 즉 래왕후 즉 보살 사상(皇帝即如来王侯即菩薩の思想)에 따라서 부처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엄입본(閻立本)이 그린 황제도권(「帝王圖卷」)에는 면복(冕服) 모습 제왕 7인 가운데 관 정면이 확인되는 무황제 유수(武皇帝劉秀), 위문제 조비(魏文帝曹丕), 오주 손권(吳主孫權), 촉주 유비(蜀主劉備), 진무제 사마염(晉武帝司馬炎), 수 문제 양견(隋文帝陽堅) 여섯 사람은 모두 매미 장식 관을 쓰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매미 장식 관은 제왕들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 미술관 함입본(閻立本)의 황제도권(「帝王圖卷」) 면복(冕服) 관에 매미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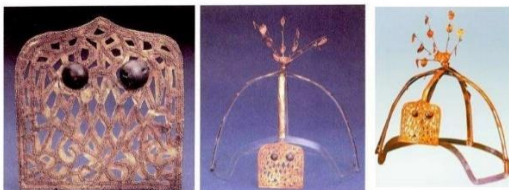


图 412. 金絲網冠. 高 7.1 厘米. 辽宁北票县西沟乡子北沟西 漢代墓出土. 图 413. 銅冠. 高 10.5 厘米. 辽宁北票县西沟乡子北沟西 漢代墓出土.

북연(北燕時代, 409-436)의 마소불(馮素弗) 무덤에서 매미 꾸미개와 함께 금제 산 모양 관 장식이나 머리핀 꾸미개가 나오기도 했다. 장식 뒤쪽에 불좌상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이 불상이 만들어지기 100여 년 전에 관 장식 뒤에 화불(化仏)을 숨겨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1916년 평양 석암리 9호 무덤에서 발굴된 옥이다. 눈, 귀, 코, 입, 가슴에 서로 다른 옥 장식을 넣어 문었다. 입에 매미 모양 옥이 놓여있다. 다른 곳에 놓인 옥 도장은 길상구인 영수강령(永壽康寧)이 새겨진 거북모양이다. 인장은 재질과 형태, 문구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상징적 뜻을 지니고 있어 무덤에 묻힌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석암리 무덤은 한사군(BC.108-AD.313) 때 만들어진 한족 무덤으로 보인다. 불상이나 우두머리 관에 보이는 매미 장식이 무덤에서도 발견되었다. 위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사진임. 2016년 2월 23일 찍었음. <http://www.museum.go.kr>